



■ 라틴아메리카 영화의 건강한 존립 - 아바나영화제를 다녀와서

임 호 준



2007년 12월 초, 멕시코시티에서 새벽 6시 50분에 떠나는 쿠바항공 여객기를 탔다. 아바나에서 열리는 제29회 라틴아메리카 신영화제(Festival internacional de nuevo cine latinoamericano, 일명 아바나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쿠바 항공은 공항 이용료를 아끼려는 듯 하루 한 편 운항하면서도 꼭두새벽에 편성을 해 놓고 있다. 체크인 데스크에서 50불에 비자를 샀는데 이걸 비자라기보다 입국세가 맞는 표현일 것 같다. 새로 도입한 에어버스 비행기는 아주 쾌적했다. 3년 전에 처음 탔을 땐 승객들에게 1불씩 받고 경품행사를 하는 등 촌티를 내더니 이젠 여느 나라의

비행기와 다름 바 없었다. 호세 마르티 공항에 내리니 열대 관광지 특유의 후끈한 공기가 느껴지며 처음 왔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영화제 보러 왔다고 하니까 출입국 관리 직원은 당장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환영한다고 했다.

호텔요금을 쿡(CUC)이라는 새로운 화폐로 지불해야 한다는 정보를 미리 받았던 터라 공항에서 돈을 바꿨는데 1쿡은 1.2 달러에 해당하는 상당히 센 화폐였다. 쿠바 인민들은 1쿡을 25페소로 바꾼다고 하는데 외국인은 그렇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쿠바사람들이 1페소 내면 외국인은 1쿡을 내야했다. 사실 '쿡'도 페소라고 부르니 외국인을 위한 페소라고 보면 되는데 결국 외국인에겐 25배나 바가지를 씌우는 셈이었다. 3년 전엔 달러를 그렇게 썼었는데 남의 나라 화폐 쓰기도 뭣하고 해서 새로 만든 모양이고 새로 만드는 마당에 좀 더 이익을 붙여먹기 위해 달러보다 세계 만든 모양이었다. 물론 쿠바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은 거주하는 장소, 먹는 음식, 타는 차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이 쓰는 페소와 쿠바인들이 쓰는 페소는 비교 불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인이 쿠바인들이 쓰는 물건을 소비하는 경우, 예를 들어 구형 합승택시를 타거나 거리를 가다 음료수를 사게 되면 외국인들이 엄청난 바가지를 쓰는 것이다.

택시 운전사는 쿡을 도입한 후에 관광객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푸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 사람들 입장에선 자기나라 돈을 말도 안 되는 쿠바 돈으로 바꿔주고 그걸 쓰라고 하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을 것이다. 경제는 어떠냐고 했더니 정부는 작년에 11% 성장했다고 하지만 자기는 못 믿겠다며 쿠바 경제는 50년 동안 계속 똑같다고 했다. 그래서 혁명이 경제적으로 별로 도움이 된 게 없냐고 슬쩍 떠 봤더니 경제적으로 혁명은 무효(nulo)란 대답이 돌아왔다. 이젠 좀 더 과감하게 발언하고 있었다.



영화제 본부로 사용한 나시오날 호텔. 엘리베이터의 뚫고 뚫은 버튼, 클래식한 수도꼭지, 화려한 장식의 목재가구에 옛 명성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영화제 본부로 쓰고 있는 나시오날 호텔에 가방을 풀었다. 쿠바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 호텔은 1930년에 건립되었고 혁명 이전 쿠바 상류층의 아지트였다. 지금도 쿠바의 대중들은 얼씬도 하지 못하는, 외국인들만의 별세계인데 영화제 본부로 쓰이고 있었다. 원래는 방 하나에 120쿵 정도 하는 모양이지만 영화제 측을 통해서 90쿵에 예약했다. 한국 돈 10만원 정도에 호텔비, 공항까지의 택시비, 아침식사가 포함되어 있으니 그리 나쁜 가격은 아니었다.

적당히 씻고 곧장 극장을 향했다. 쿠바까지 오는 데 든 시간과 비행기 값을 생각하면 한편이라도 더 봐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기 때문이다. 영화제 극장은 주로 호텔 근처인 베다도(Vedado)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10분 정도면 다 걸어갈 수 있었다. 가장 가까운 라 램파(La Rampa) 극장에 갔더니 입장권은 2페소란다. 그러면 외국인인 나한테는 당연히 2쿵을 말하는 거다. 예상했던 바지만 그래도 왜 외국인에겐 스물다섯 배나 더 받느냐고 항의 했더니 극장 관계자들이 일제히 “당신네 나라에선 2쿵이 쿠바사람들에게 2페소와 같은 거 아니요” 라고 기분 나쁜 질문을 받았다는 듯 받아쳤다. 하긴 뭐 2,500원 정도주고 영화 한편 보는 셈이니 그리 비싼 것도 아니라 그냥 6쿵을 주고 그 자리에서 세 편의 입장권을 샀다. 대신 쿠바 사람들은 영화관 밖으로 엄청나게 긴 줄을 서고 있었지만 나는 줄 서지 말고 그냥 들어가란다. 속으로 “당연하지, 스물다섯 배나 더 내는데” 하면서 들어갔다.

메인 상영관 중의 하나인 라 램파(La Rampa) 극장은 천정과 벽이 널빤지로 덕지덕지 기워져 있었고 숨이 빠져나온 의자는 삐걱삐걱 소리가 났다. 깨끗한 카펫이 깔리고 널찍한 안락의자가 설치돼 있는 우리나라의 멀티플렉스 হল과는 비교가 안 됐다. 하지만 규모는 상당해서 500석은 족히 돼 보였다. 먼저 들어가 앉아 있으니 관객이 점점 들어차서 거의 만석이 되었다. 5,60대로 보이는 아줌마 관객이 절반 이상이어서 인상적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장년층은 1층에, 젊은 층은 2층에 주로 앉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그것도 모르고 1층 가운데 앉아있던 나는 순식간에 아줌마들로 둘러 싸였다.

첫 번째로 본 영화는 아홉 살짜리 멕시코 소년이 미국으로 돈 벌러 간 엄마를 찾아가는 <같은 달 La misma luna>라는 영화였다. 관객들은 영화에 한껏 몰입해서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소년이 엄마와 아슬아슬하게 지나치는 순간엔 안타까운 탄성이 흘러나왔다. 그다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1세계 관객에

비하면 쿠바 관객들은 훨씬 순박했다. 인상적이었던 건 굶주린 소년이 멕시코 이민자의 도움으로 맥도날드 가게에서 햄버거를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 카메라가 햄버거를 클로즈업 하자 관객들은 일제히 ‘와’ 하면서 입맛을 다셨다. 맥도날드 햄버거가 쿠바 관객에게선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나갈 때는 수많은 인파가 극장 밖으로 설치된 좁은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오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 녹슨 철제 계단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 이국에서 횡사하는 거 아닌가 싶어 조마조마했다.

영화 세편을 보고 호텔에 돌아오니 영화제 보러 온 사람들에게겐 등록을 받고 프리 패스를 60쿵에 팔고 있었다. 이미 돈 내고 본 것도 있고 나흘 동안 도저히 30편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나는 그냥 극장에서 입장권을 사서 보기로 했다. 하지만 나중에 후회했다. 입장권을 사는 것도 귀찮은 일이었거니와 등록을 해서 프리 패스를 목에 걸고 다녀야 영화제 관계자로 알고 쉽게 서로 교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영화를 보러 가면 거의 예외 없이 한 시간 전부터 와서 줄 서 있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나는 처음엔 좌석 번호가 없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저러나보다 했다. 그러나 나중에



영화제 메인 상영관, 라 람파 극장. 간판에는 ‘제29회 라틴아메리카 신영화제’라는 문구가 선명하다.



영화제 메인 상영관, 야라 극장. 대부분 도보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메인 극장들이 위치하고 있다.



극장 기둥에 나붙은 영화제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있는 관객들

알고 보니 그냥 장소와 날짜에 관계없이 모든 영화를 볼 수 있는 쿠폰을 미리 팔고 먼저 줄 선 사람부터 들여보내주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다보니 인기 있는 영화를 보기 위해선 일찍부터 줄을 서야 하는 것이었고 한 시간을 줄서서 기다려도 못 들어가기 일쑤였다. 그러면 못 들어간 관객들은 극장 앞에서 들여보내 달라고 아우성을 쳤다. 물론 프리 패스를 가진 외국인이나 스물다섯배의 입장료를 지불하고 다니는 나는 쉽게 들어갈 수 있었지만 못 들어가서 아쉬워하는 쿠바 관객들 앞에서 그냥 들어가자니 좀 미안했다. 호텔에서 공짜로 나눠주는 영화제 프로그램도 쿠바인들에게 1페소에 판다고 했다. 그러니 극장 앞 기둥에 붙은 손바닥만한 프로그램을 서로 보려고 난리였다. 국외자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일들이지만 쿠바 사람들은 그런 일에 익숙해 있는 듯 했다.

영화제는 호텔 주변에 있는 4-5개의 큰 극장 위주로 진행되었지만 교통이 안 좋은 아바나의 사정을 고려해서 아바나의 주변 지역에 있는 몇 개의 극장에서도 하루에 한편씩 영화를 상영하고 있었다. 꼭 봐야 하는 영화가 있어 20-30분 택시를 타고 갔더니 변두리 극장은 시내 극장보다 더 형편이 없어서 거의 다 쓰러져 가고 있었다. 외국인 관객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순박한 할머니 매표원은 2쿵을 냈더니 1쿵은 돌려주고 23페소를 거슬러줬다. 이렇게 해서 쿠바 인민들이 사용하는 페소화를 처음으로 만져볼 수 있었다.

호텔에서 전주 영화제에서 봤던 쿠바 감독 한 사람과 칠레 감독 한 사람을 만났다. 전주에서 봤다고 했더니 자기들도 생각난다고 하며 반갑게 대해 주었다. 하지만 진짜 기억하고 하는 소린지 의심이 갔다. 전주에선 영어를 못해 다른 나라에서 온 감독들과 사귀지도 못하고 뺄뚱하게 있던 사람들이 아바나에선 모두가 스페인어를 쓰니 고기가 물 만난 듯 신나게 떠들어대며 있었다. 역시 홈그라운드가 좋은 거다 싶었다.

아바나영화제는 라틴아메리카 영화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 경쟁 부문은 모두 라틴아메리카 영화로 편성되어 있었고 전체 상영작 300여 편(단편 포함)의 대부분이 라틴아메리카 또는 스페인·포르투갈 영화였다. 쿠바 관객들에게 물어보니 쿠바에는 미국영화가 몇 년 지난 것 밖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라틴아메리카 영화가 인기라고 했다. 하기야 이렇게 싼 입장료를 받는데 어떻게 미국 영화를 사 올 수 있겠는가. 그러니 다른 나라에선 홀대받는 라틴아메리카 영화가 쿠바에선 엄청난 인기를 누릴 수밖에 없어 보였다. 어떤 상영관은 1,000

석에 가까울 정도로 규모가 컸지만 거의 매회 만원을 이루었다. 그러다보니 다른 나라 영화제에선 하루에 한 극장에 기껏해야 서너편 정도를 편성을 하는데 여기에선 아침 10시부터 2시간 30분 간격으로 밤 10시 30분까지 다섯 편을 돌렸다. 그런데도 상영관마다 관객이 꽉꽉 들어차고 있으니 관객 동원 면에선 놀라울 정도의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사람들은 열 개의 입장권 쿠폰을 사서 잘라가며 쓰고 있었다. 보통 열 편 씩은 본다는 얘기였다. 옆에 앉았던 한 아줌마의 말에 의하면 쿠바의 교통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지 교통사정만 좋다면 지방에서부터 엄청난 관객이 몰려올 거라고 했다.

특별 세션으로는 미국에서의 히스패닉을 다룬 라티노 영화, 스페인 감독 호세 루이스 보라우, 프랑스 감독 에릭 로메르, 그리고 영국 영화와 캐나다 영화를 마련하고 있었다. 제작년 산 세바스티안 영화제에서와 마찬가지로 라티노 영화 세션을 마련할 걸 보면 역시 스페인어권에서는 라티노 영화가 현재로서는 최고의 핫 이슈인 것 같았다. 아슬아슬한 밀입국, 미국에서의 눈물나는 고생, 순진한 이민자들을 등쳐먹는 파렴치한 조직 등 라티노 영화가 가진 흥미로운 요소는 상당하다. 여러 편의 라티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 멕시코나 다른 라틴아메리카 출신 감독이 만든 것은 좀 피상적이고 전형적인 장면들이 많았음에 비해 오히려 미국 감독들이 만든 라티노 영화가 더 라티노 문제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요즘 쿠바의 경제는 외국인 관광객이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관광객의 지갑을 열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다보니 외국인에게 특권을 주는 데 아주 익숙해 있었고 반면에 쿠바 대중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었다. 예를 들어 극장에선 감독이 직접 나와서 관객의 질문을 받는



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한 멕시코 배우 가엘 가르시아 베르날 주연의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한 장면. 그를 보려고 몰려든 인파로 새삼 인기를 실감했다고 한다.

행사는 한 번도 없었고 대신 호텔에 마련된 홀에서 감독의 미디어 인터뷰가 열렸다. 나시오날 호텔은 쿠바 사람들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과의 대화는 영화제 관계자나 외국인들만 참여할 수밖에 없다. 영화제 행사로서 감독과의 대화, 라틴아메리카 영상산업 관련 토론회, 학술 세미나 등이 열렸지만 모두 대중을 위한 행사가 아니었다. 대중들이 이렇게 열심히 영화제에 오는데 감독과의 대화 기회 한번 주지 않는 건 심한 역차별이었다.

다른 나라의 영화제처럼 인기 배우들도 거의 볼 수가 없었다. 다만 한 여대생 말에 의하면 영화제 개막식 때 요즘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배우인 가엘 가르시아 베르날(Gael García Bernal)이 왔었고, 그를 보려고 밀려든 인파 때문에 난리가 났었다고 했다. 시내의 식당에 가도 노천카페 임에도 종업원이 경계를 서고 쿠바인들의 접근을 엄격하게 막았다.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개막작을 못 봐서 개막작으로 상영되었던 브라이언 드 팔마의 <재구성 Redacted>을 보러 갔더니 미국 관광객들이 잔뜩 앉아 있었다. 그냥 관광으로 온 모양인데 영화제에서 자기네 나라 영화한다니까 몰려온 것 같았다. 그런데 이 영화는 이라크에 주둔한 미군이 현지인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이라크 소녀를 성폭행하는 일종의 모큐멘터리(mokcumentary)였다.



이라크전을 다룬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영화 <재구성>의 한 장면

내용이 이렇다보니 30분쯤 지나자 심기가 불편해진 미국인들이 대거 극장을 빠져 나가기 시작했다. 라틴아메리카 영화제를 표방하는 아바나영화제에서 미국영화가 개막작이라 나도 처음엔 의아했지만 그 의문은 이렇게 쉽게 풀렸다.

나흘 동안 열다섯 편의 영화를 보고 아바나에서의 일정을 끝냈다. 마지막 날엔 해물구이를 시켜놓고 혼자 포도주를 마시며 아바나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아바나영화제에서 확인한 건 이 영화제가 라틴아메리카 영화의 버팀목이라는 명성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오기 전엔 쿠바의 경제 사정도 열악한데 영화제가 제대로 되겠나 하고 의심했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 영화제의 열기는 그 동안 가본 어느 영화제보다도 더 뜨거웠다. 더불어 확인한 건 라틴아메리카 영화의 건강한 존립이었다. 예전보다 제작 편수도 많아졌고 라틴아메리카의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상영되고 있었다. 이쪽 영화를 공부한답시고 기웃거리고 있는 나로서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 처음엔 영화 몇 편 보겠다고 비싼 비행기 값 지불해가며 그 먼 곳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런 회의는 말끔히 가실 수 있었다. 여하튼 부지런히 다녀야 배운다는 걸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나로서는 의미 있는 여행이었다.□

임호준 -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시네마 슬픈 대륙을 품다』 등이 있다.
